‘진안홍삼축제’ 프로그램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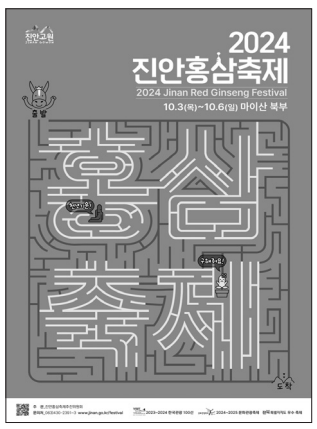
3~6일 마이산 북부 일원서 공연·이벤트·청소년 문화축제 등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4-2025 문화관광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오는 3일에서 6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주제관을 비롯해 고품질의 진안홍삼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선착순 할인판매와 구입 금액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 등 진안홍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먼저 3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세계 최대 홍삼칵테일쇼”가 펼쳐진다. 333명이 동시에 칵테일 셰이커를 흔드는 대동이벤트와 함께 진안홍삼과 조선태조몽금척 이야기를 담은 개막주제 공연을 비롯해 윤도현밴드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4일에는 공연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비롯해 신바람 건강체조, 가수 거미가 출연하는 응답하라, 홍삼콘서트 OST 가을음악회 등이 열려 가을밤을 차분히 적실 예정이다.



2024 진안홍삼축제 포스터

3일차인 5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베베핀 해피콘서트” 공연이 2회 펼쳐진다. 또한 밤에는 축제를 더욱 뜨겁게 달굴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출연 주현미, 박군, 김수찬 등)이 축제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4일차인 6일에는 진안 청소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축제인 ‘진안군 청소년 문화축제’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공연(출연 이찬원)이 개최될 예정이다.

상설 행사로 진안홍삼의 효능을 체험하고, 선물도 받는 ‘진안홍삼킹덤을 지켜라’와 축제장 인근인 가위박물관에서 펼쳐지는 팝업 전시인 ‘캐리와 친구들 in 가위 박물관’이 연계행사로 진행된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홍삼을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인만큼 홍삼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했다”며 “도심에서 벗어나 천혜의 자연을 가진 진안에서 몸과 마음을 편히 쉬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국의 샤모니를 만나다’ 장수트레일레이스 성료

13개국 1600여명 선수 참가

‘한국의 샤모니’를 꿈꾸는 장수군에서 27일부터 29일 3일동안 진행된 ‘2024 제4회 장수 트레일레이스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제4회 대회는 20K코스(349명), 38K-P코스(543명), 38K-J코스(403명), 70K(161명), 100K 코스(162명) 총 5개코스로 진행됐으며 100K코스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12개국의 선수들이 참여해 국제 대회로서 성장세를 보였고, 총 국내·외 1,600여명의 선수가 축제의 분위기 속에 산을 내달렸다.

대회 결과 100K코스에서는 조계훈 선수(14시간42분14초)와 박지영 선수(17시간50분56초), 70K코스에서는 심재덕 선수(9시간19분58초)와 Chisato Kario 선수(11시간38분15초), 38K-J코스에서는 김수용 선수(4시간31분56초)와 박수지 선수(5시간15분59초), 38K-P코스에서는 박형근 선수(4시간30분55초)와 이새별 선수(5시간22분17초), 20K코스에서는 오혜성 선수(2시간6분54초)와 신기해 선수(2시간33분55초)가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금번 대회에 추가된 100K 코스는 장수종합경기장을 시작으로 승마로드-와룡자연휴양림-팔공산-신무산-봉화산철쭉군락지-백운산-장안산-장수논개활공자-동촌고분군-의암공원으로 이어져 백두대간을 약16km 달릴 수 있게 마련됐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공연을 통해 활력이 더해졌다.

한편 오는 10월 19일에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트레일레이스 ‘제1회 캐니크로스 장수’가 장수 승마로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어르신 무료 ‘눈’ 검진 실시

무주군이 오는 29일 무주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눈’ 검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검진은 선착순(1백 명) 예약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검진 희망자는 15일(09:00~) 무주군보건의료원으로 전화신청(063-320-8410, 8411, 8243) 하면 된다.

검사는 29일 오전 9시부터 무주군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며 문진을 비롯한 시력, 안압,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 검사를 비롯해 상담이 진행된다.

돋보기와 의사처방에 따른 안약 등도 제공되며 검진 결과에 따라 수술대상자(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의료비(1인 당 150만 원 한도)도 지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의 들소리 무주서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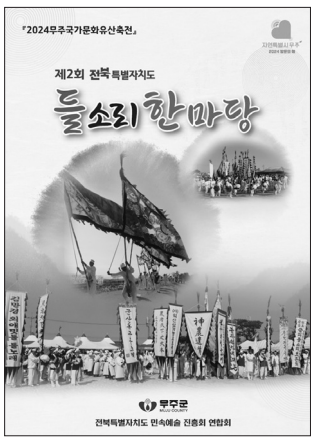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들소리 한마당 경연대회 5일 개최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들소리(농요·노동요) 한마당 경연대회가 오는 5일 무주에서 ‘2024무주국가문화유산축전’의 일환으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무주읍 한풍루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무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민속예술진흥회 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민속예술진흥회 연합회 무주군지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들소리 관련 개인과 단체 9개 팀 3백여 명이 참가해 지역의 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김제시 우리문화연구회가 “김제농악 도둑잽이굿”을, 군산시 옥구들노래보존회에서는 “군산옥구들노래”를 준비했으며 무주군 치목삼베짜기보존회가 “적상면 치목마을 삼베일소리”를 펼친다.

진안군에서는 마령원평지들소리회에서 “마령들소리”를, 익산시 사)익산삼기농요보존회가 “익산삼기농요”를, 완주군 한우리예술단이 “완주농악”을 들려준다.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보존회가 준비한 “금과들소리”를 비롯해 무주군 서면마을 장례요보존회에서 펼치는 “서면마을 장례요”, 전주시 전주기접놀이보존회가 들려주는 “전주농요 논메는소리 만두레”와도 만나볼 수 있다. 풍년제와 합굿, 무주농악보존회(상쇠 성태일)가 펼치는 초청공연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들소리 한마당 경연대회의 가치를 2024 무주국가문화유산축전에서 확인하고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무주대회를 통해 민속예술이 재조명되고 그 중요성이 회자될 수 있도록 많이들 오셔서 관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4 무주국가유산축전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무주한풍루와 무주향교, 무주군청, 남대천교(사랑의 다리), 적상산사고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첫날 “들소리 경연대회”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과 “무주문화유산 야행”과 함께 할 수 있다. 둘째 날에는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포쇄·이안 재연” 행사 관람이 가능하다.

이외에 ‘서책 만들기’와 ‘민화 그리기’, ‘의궤 전시’, ‘복식 체험’, ‘삼베짜기 재연과 체험’, ‘소원등 달기’ 등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부스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8개국 파견’ 태권도 봉사단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해외에서 태권도 보급과 봉사활동을 진행할 ‘2024년 태권도 봉사단’을 10월 27일까지 모집한다.

‘태권도 봉사단’은 태권도 3단 이상 태권도 전공자 중심으로 단원을 선발, 해외에 파견해 태권도 보급과 함께 태권도와 대한민국 위상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해외 파견을 재개해 2022년에는 6개국 22명, 2023년 4개국 14명을 파견한 바 있다. 올해는 20여 명의 태권도 봉사단원을 선발해 8개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봉사단원들은 2025년 1월에서 2월 중, 한 달여간 해외에서 태권도 봉사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유럽 라트비아, 미주 브라질, 오세아니아 호주, 아시아 몽골,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 모든 대륙으로 봉사단원을 파견해 태권도 저변 확대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온라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 후 면접과 실기전형, 집합 교육을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 파견 단원을 선발한다. 태권도 봉사단원들은 태권도 지도 활동을 비롯해 국제 개발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이해, 개발협력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이사장은 “태권도 봉사단 해외 파견 사업은 예비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 양성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봉사단원들이 해외에서 뜻깊은 경험을 얻음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국기 태권도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선발과 교육 과정, 파견국 공관과의 협력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마이산 탑사’ 진안홍삼 축제 기간 관람료 면제

한국불교태고종 마이산탑사(주지 진성스님)는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4 진안홍삼축제” 기간 동안 축제 방문객들이 진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탑사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제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마이산의 독특한 자연 경관과 탑사에 담긴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이산탑사 관계자는 “진안홍삼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진안의 상징적인 명소인 마이산 탑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관람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으며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홍삼축제는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도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진안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제38회 9.28 향토 수복 전몰자 추모제 성료

‘제38회 9.28 향토수복 희생 호국영령 추모제’가 28일 장수군 산서파출소 경내에서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 기관단체장, 주민들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장수군 9.28수복 동지회(지회장 임순승)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추모제는 초헌관 최훈식 장수군수, 아헌관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종헌관 산서파출소 장대열 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6.25전쟁 당시 지역주민들을 수호하다 희생되신 고 이완기 경찰관 등 15위의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개최된 본행사는 1996년 이후 38번째를 맞이했으며 장수군을 대표하는 호국행사로 자리 잡았다.

최훈식 군수는 “민족의 자주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후손에게 전해 나라사랑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